

보도	2025.7.4.(금) 15:00	배포	2025.7.4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	책임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임연하	(02-3145-7065)
	은행검사2국 경영실태평가팀	담당자	국 장	박진호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김도희	(02-3145-7210)
	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정은정	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이진아	(02-3145-8330)

금감원,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- 주요 내용 -

- ◇ (전문가) AI 기본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,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에 따른 내부통제
- ◇ (금감원)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, 생성형 AI 활용 검사기법, 은행계좌 불법이용 방지대책
- ◇ (은행권)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사례 등 발표

I 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25. 7. 4일(금) 15시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
 -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,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(8개사)와 은행(20개사)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
-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,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

은행권 내부통제워크숍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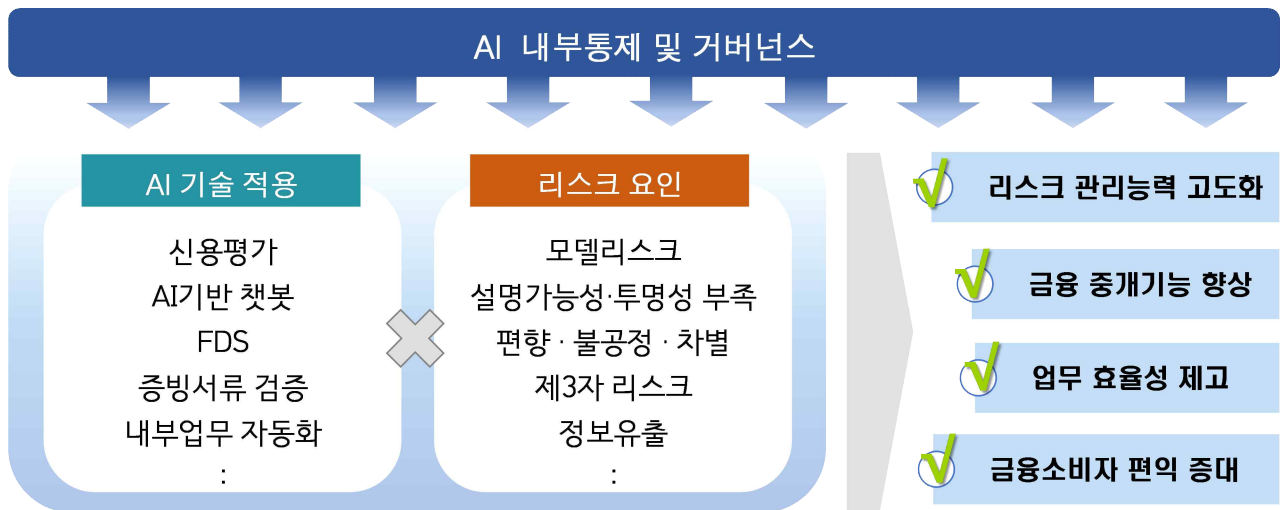
시간	발표 주제	발표자
15:00~15:05	[개회 및 모두발언]	금감원 부원장보
15:05~15:45	① 전문가 특강 -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- 횡령 등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에 따른 내부통제	울촌 삼일 PWC
15:45~16:15	② 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- 바람직한 책무 이행을 위한 임원의 관리의무 -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사기법 - 은행계좌의 불법이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	금감원 은행검사1국 금감원 은행검사2국 금감원 은행검사3국
16:15~16:45	③ 은행 사례 -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를 통한 개선 사례 -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고객데이터 활용사례 - AI를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내부통제	하나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
16:45~17:00	④ 질의응답	

II. 주요 논의내용

1 부원장보 모두발언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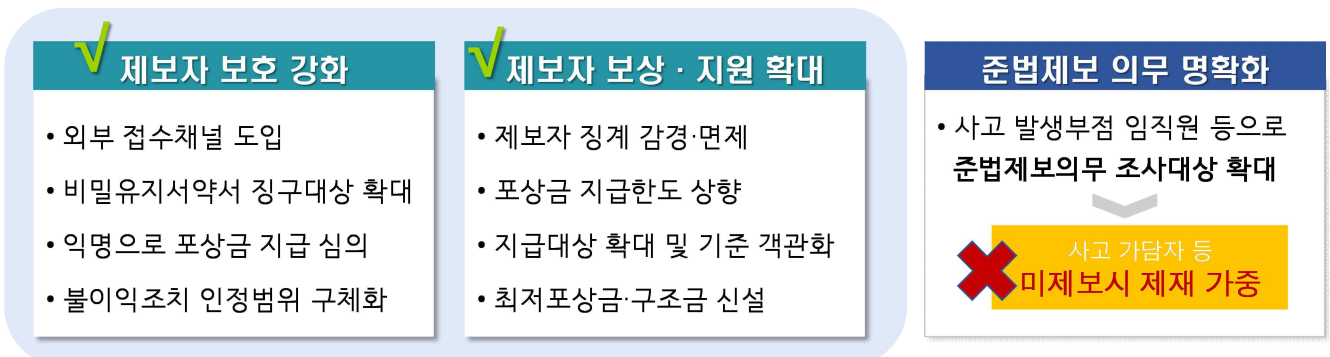
□ 금융감독원 박충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의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음

- ① **(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)** 최근 AI 기술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, 은행권에서도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절차와 거버넌스를 갖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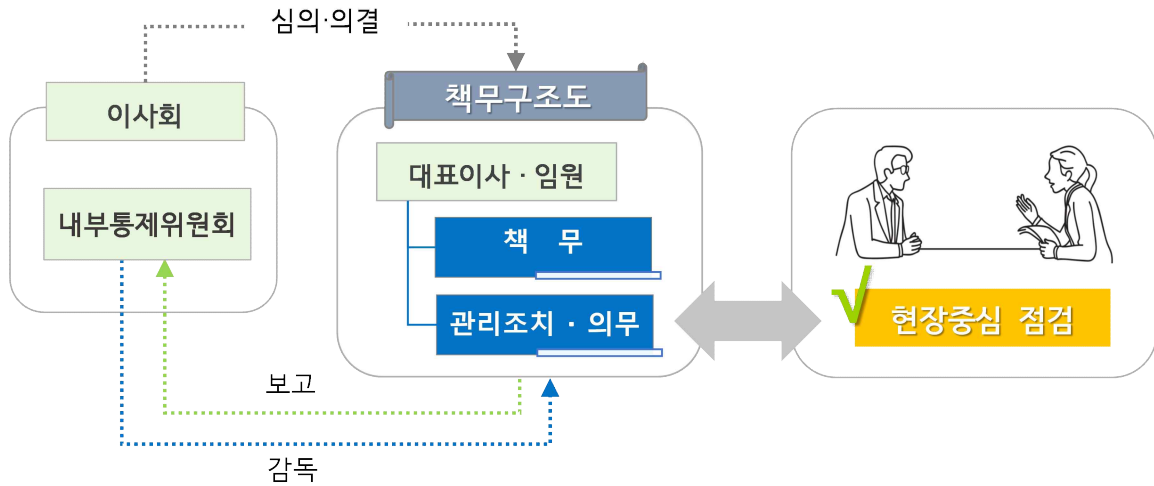


- ② **(준법제보 활성화)** 지난 4월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*이 실질적인 금융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보시 인센티브와 미제보시 불이익에 대하여 명확히 교육하고, 제보 절차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* '25.4.4일자'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제하「준법제보 활성화 방안」마련 제하 보도자료 내용 참고



- ③ **(책무구조도 현장 정착 정착)**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내부통제 운영·집행과 연계된 명확한 책임구조를 설정하고, 책무구조도에 따른 관리의무·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



2 금융회사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는 '26.1월 시행 예정인 「AI 기본법」*의 주요내용과 은행업무에 AI를 활용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을 설명

*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」(26.1.22. 시행 예정)

- AI 기본법상 의무사항, 의무 위반시 조사 및 제재사항에 대해 EU AI Act 등 해외 유사 법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, 기존 금융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 유의사항* 및 시사점을 도출

* (예시) 금융회사가 AI를 이용하여 개인(신용)정보를 처리하고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, 「AI 기본법」 외에 「신용정보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준수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

3 횡령 등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에 따른 내부통제

- PwC 지배구조센터 장온균 센터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금부정통제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, 자금부정사고의 상당수가 취약한 내부통제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등에 기인하므로

-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감사(위원회)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

* '24.11.11일자 「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·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」 공시를 위한 세부 작성지침 마련' 제하 보도자료 내용 참고

4

바람직한 책무 이행을 위한 임원의 관리의무

-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시중은행의 책무구조도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
 - 내규·전산 등 인프라 측면의 공통 개선사항과 임원의 6대 관리의무*별 우수·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
- * ①기준의 적정 마련 점검, ②기준의 효과적 집행·운영 점검, ③임직원 준수여부 점검, ④위반·미흡사항 시정·개선, ⑤교육·훈련 지원, ⑥대표이사 앞 보고체계 마련

5

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사기법

- 금감원은 이사회 의사록 등 방대한 텍스트 자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“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사기법”을 소개
 - 각종 의사록·회의록 발언 내용에 대해 긍정·부정 성향을 점수화하고 현안 및 이슈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는 등 검사과정에서 보조수단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, 점진적으로 적용대상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

6

은행계좌의 불법이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강화

- 금감원은 은행계좌의 불법목적 악용 및 금융소비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상품·서비스 운영시 유의점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소개
 - 자유적금계좌, 모임통장, 청소년이용계좌 등에 대한 이상거래탐지(FDS)를 고도화하여 불법행위 집금·송금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,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상품·서비스 안내를 강화하도록 당부

7

은행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사례

- 하나·부산·케이 등 3개 은행은 AI 등을 활용한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
 - (하나) 수출입 관련 서류의 복잡성 등으로 실무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수출입여신 심사업무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서류하자 및 입금 지연 등 결제리스크를 개선
 - (부산)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디지털 시민증 및 대학 장학금 디지털 바우처 도입·운영
 - (케이) 생성형 AI 기술을 광고심의, 의심거래보고 거래건 추출, 고객 증빙서류 검증 및 신분증 위변조 탐지 등에 활용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일 워크숍은 AI 기술이 금융권에 확산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AI 기술 활용 및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,
 - 전문가 특강 및 은행들의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은행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의 장(場)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
-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워크숍,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면서
 - 은행이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